

“꿈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기를”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아산장학생들(앞의 두 줄)과 아산재단 임원진, 내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뒷줄 왼쪽부터 최재성 아산재단 이사,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최종원 아산재단 감사, 김유후 아산재단 이사,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김명자 · 이봉주 아산재단 이사,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흥구 아산재단 이사,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상주 · 이춘림 · 한승주 · 정진규 아산재단 이사, 김동연 이주대 총장, 이병규 아산재단 이사, 박찬량 국민대 부총장, 정윤세 단국대 학생처장, 박상욱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이종명 명지대 부총장, 송성일 해경본부 안전총괄과 경위, 임누리 경찰청 복지정책계장.

아산재단은 2월 23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에 자리한 아산 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7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이흥구·장정자·이상주 이사 등 아산재단 임원진과 각 대학 및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 등 제복 입은 대원)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산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과 장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한 뒤 “아산재단은 북한땅인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신 아버님께서 세우셨다. ‘생명이 있는 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님은 한평생 꿈에 도전하신 분이였다”면서 선친인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를 회고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생활비 지원

정몽준 이사장은 “선친께서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자고 하시면서 아산재단을 설립한 1977년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때였다. 아산재단은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강원도와 충청도, 영·호남 벽지에 종합병원을 세웠고, 사회복지와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매년 1,500여 명의 학생에게 5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아산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국가와 여러 기관의 장학금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장학금이 필요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출산·취업·인간관계 심지어 희망까지 포기한 ‘N포세대’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한 정몽준 이사장은 “올해부터 의생명과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의생명과학 대학원생 장학제도와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제도를 신설했다”면서 “우리 재단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어서 “사업하느라 바쁘시면서도 어떻게 풍부한 감수성을 지니셨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라면서 정주영 설립자가 직접 쓴 에세이 ‘새봄을 기다리며’중에서 ‘봄은 만인이 듣는 복음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봄은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춥고 음침한 긴 겨울을 힘겹게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김동연 아주대 총장(위부터).

견디어 낸 사람들에게 봄은 더욱 따스하다. 살며시 스며드는 봄은 자애의 어머니 같은 성품 그대로이다. 포근하고 훈훈하다’라는 구절을 들려준 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약속하는 봄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쳤다.

“공부는 과연 왜 하는 것인가?”

축사는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이 맡았다. 김동연 총장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한 축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냈다.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아산재단에서 축사를 맡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서울 청계천의 판자촌에서 살던 소년가장으로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은행에 취직했지만 공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서 야간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생이 된 뒤 ‘고시’라는 등용문을 알게 되어 낮에 은행 업무를 마치면 저녁에 대학에 갔고, 밤에는 다시 고시 공부를 하다가 행정고시(26회)와 입법고시(6회)에 합격해 32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



① 정몽준 이사장이 올해 신설된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장학제도의 대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뒤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진호(서울대 화학 3학기), 박주미(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 3학기), 김찬영(연세대 생명공학 5학기) 장학생. ② 이홍구 아산재단 이사가 성적우수장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뒤 자리를 함께 했다. 오른쪽부터 강재희(제주대 컴퓨터공2), 문정섭(한동대 생명과학2), 김정후(이화여대 화학나노공2) 장학생. ③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각 대학 관계자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한 과정을 들려주었다.

역경을 헤치고 나오자 김 총장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진짜 내 꿈이었을까, 남들이 보기에 정답이었던 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인생 최대의 회의가 찾아왔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내 인생을 살자, 대리 인생을 살지 말자”고 자각한 김 총장은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자는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한다.

2015년 아주대에 부임한 김 총장은 아산장학생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익숙해진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주영 설립자께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아산재단을 설립한 뜻을 항상 마음에 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생명 대학원생 장학제도 신설

설립 직후부터 인재 양성과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학 사업을 펼쳐온 아산재단은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고등학생 660명, 대학생 799명(MIU자녀 장학생 230명 포함), 대학원생 17명 등 총 1,476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대학생 장학생 중에서는 성적우수장학생(211명)과 올바른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154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또한 육체적인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는 다숨장학생(30명)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124명)에게는 등록금 외에 매월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처음 생긴 생활비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몽준 이사장이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올해에는 국내의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장학제도를 신설해서 우리나라의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국내외 대학원생 7명을 선발했다(해외 대학원생 2명은 6월 선발 예정). 이외에도 아시아와 중남미 등 저개발국에서 자비로 국내 대학원에 유학 중인 외국인 10명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고등학생 장학생 중에서는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여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e-learning장학생(500명) 선발이 눈에 띄었다.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김동연 총장님의 축사를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을 모았다. 또한 “평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올해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올해 처음 선발된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들은 “우리나라 의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자가 되어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3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60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 인사말과 축사 전문은 아산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